

# 성삼 한인 성당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1년 8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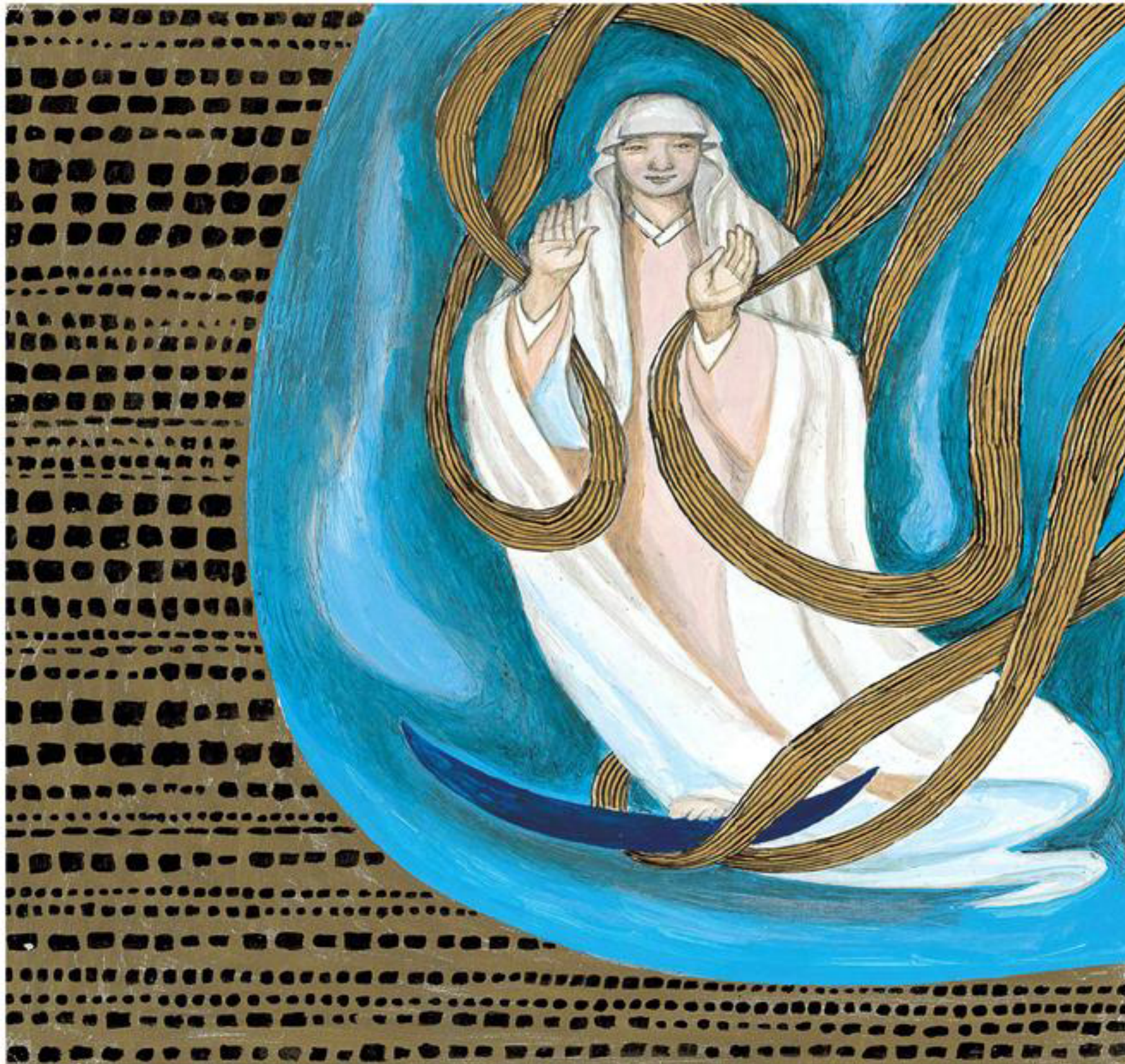


복음 나누기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

당신이 행복한 이유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루카 1,39-56)



## 성모 승천

그림 정미연 소화데레사 | 화가

하늘로 들어 올림을 받으신 성모님께서 지상의 우리들에게 희망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온유한 분홍빛 우리 옷으로, 사랑 넘치신 우리 어머니의 모습으로, 하느님께 우리를 위해 전구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성모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복음 나누기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59번 "성모 승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주님, 주님 말씀이 제 안에 이루어지리라 믿는 믿음을 저에게 주소서.

###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 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39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올로 갔다. 40 그리고 조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42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43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44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45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46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47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48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49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50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51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습니다. 52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53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54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55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56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루카 1,45)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 질 때, 우리는 더욱 행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까?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루카 1,47-48)

내가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시련과 고통을 겪고 계심을 묵상해 봅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복음 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수도 없이 성모송을 바치며 '마리아님, 당신은 복되십니다.' 고 외우고 있습니다. 성모님이 왜 행복한지 정작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지만 그렇게 믿고 외우며 성모송을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깨닫고 가슴에 새겨야합니다. 성모님이 행복한 진짜 이유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자신의 소원을 빌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짐으로써 행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당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청하셨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써 행복해지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믿음은 우리의 욕심과 희망사항으로 채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희망사항이 있는 자리에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믿음을 가져다 둬시다. 하느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게 대해 더 잘 아십니다. 내 뜻보다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내가 보다 더 행복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음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시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를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리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